

/j/ 첨가와 전남방언 분화

강희숙*

|| 차례 ||

1. 머리말
2. /j/ 첨가의 국어학적 성격
3. 전남방언에서의 /j/ 첨가 실현 양상
4. /j/ 첨가와 전남방언의 분화
5. 맺음말

【국문초록】

본 연구는 국어가 수행해 온 통시적 발달의 결과로 나타난 재어휘화의 모습으로 존재하는 /j/ 첨가의 국어학적 성격에 대한 연구사적 고찰을 통하여 이 변화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이 현상과 관련된 전남방언의 분화 양상을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 결과, /j/ 첨가의 국어학적 성격에 대해서는 일정한 음성 조건과는 관련이 없는 무조건적 변화에 속하는 것으로서, 체언을 비롯하여 동사나 부사와 같은 상당히 다양한 문법 범주에 적용되어 온 것이라는 사실과 함께, 일정한 조건적 환경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수행되었던 /j/ 첨가와 탈락이 무조건적 환경으로까지 확대 적용된 데 그 동기와 원인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전남 방언에서는 /j/ 첨가가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러한 실현 양상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전남 방언의 분화상은 어떠한가에 대해서는, 어간말 모음이 /아, 어/인 경우에는 상당히 생산적으로, /오/인 경우에는 몇몇 어휘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되, 체언의 경우는 물론 몇몇 동사나 부사의 어간말 모음 뒤에서도 실현되고 있음을 밝혀내었다. 또한, 일부 어휘의 실현 양상이 방언권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데, 전남의 북동부 지역어에서 가장 활발하게 실현되는 반면, 서남부 지역에서는 가장 낮은 실현율을 보임으로써 /j/ 첨가가 전남방언의 방언권을 설정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

* 조선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 /j/ 첨가, /j/ 탈락, 재어휘화, 무조건 변화, 전남방언, 방언분화

1. 머리말

국어 방언들에서 나타나는 언어 현상들 가운데는 아직도 그 언어학적 성격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것들이 상당수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어간의 끝 음절이 단모음 /아, 어, 오, 우/로 끝나는 경우에 수행되었던 하강적 활음(off-glide) /j/의 첨가 현상이다. 예컨대, ‘가마>가매, 송어>송에, 소>쇠, 국수>국쉬’ 등의 어휘에서 발견되는 것처럼, 개음절 환경에서 후설모음 /아, 어, 오, 우/가 전설모음 /애, ऐ, 외, 위/로 변화하는 현상이 그것이다.¹⁾ 이러한 변화는 체언과 같은 형태론적 범주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용언은 물론 일부 부사어에까지도 확대되어 있음은 물론, 그 실현 정도에 차이가 있긴 하지만, 남부방언을 비롯하여 국어의 많은 방언들에서 흔히 발견되는 현상 가운데 하나이다.

물론, 어간의 끝 음절이 단모음 /아, 어, 오, 우/로 끝나는 경우에 나타나는 /j/ 첨가 현상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있어 전제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이러한 현상이 공시적으로도 생산적인 현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이와 같은 변화는 오랜 역사적 발달 과정을 거쳐 국어 하위방언들의 공시적 체계를 구성하는 요소로 내재해 있는 것으로, 이미 16, 17세기 국어에서부터 발견되고 있으며, 따라서 /j/ 첨가 현상은

1) /j/ 첨가에 의해 후설모음 /아, 어, 오, 우/가 /애, ऐ, 외, 위/로 변화한 어휘의 예들과 방언 분포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로는 황대화(1998:64-69)를 들 수 있다. 이 논의에 따르면, 후설모음 가운데 /아, 어/의 변화는 국어의 여러 하위 방언들에서 비교적 균질적으로 실현되고 있으며, /오, 우/의 변화는 주로 함경남북도, 제주도, 강원도 고성·이북의 해안지방에서 나타나고 있다.

국어가 수행해 온 통시적 발달의 결과로 나타난 재어휘화(relexicalization)의 모습으로 반영되어 있다. 다시 말해 /j/ 첨가는 /애, 예, 외, 위/ 등의 모음이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단모음이 아니라 /aj, ej, oj, uj/ 등과 같은 이중모음이었던 시기에 수행된 것으로서, 후설모음 /아, 어, 오, 우/에 /j/가 삽입되어 이중모음을 형성하였다가 이 모음들이 단모음화함에 따라 오늘날과 같은 모습으로 존재하게 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본 연구는 /j/ 첨가의 국어학적 성격에 대한 연구사적 고찰을 통하여 이 변화의 특징이 무엇인가와 함께, 이 현상과 관련된 전남방언의 분화 양상을 파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작업을 수행해 나감에 있어 본 연구는 일정한 사회적 공간에서나 지리적 공간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은 시간적 차원에서 수행되었던 변화의 결과일 수 있다는 전제하에(Moulton 1968)²⁾, 국어가 수행해 온 통시적 언어 발달의 과정을 고려함으로써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하고자 한다.

2. /j/ 첨가의 국어학적 성격

국어의 통시적 변화의 과정에서 상당히 생산적인 현상으로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하강적 활음(off-glide) /j/의 첨가는 어떠한 국어학적 성격을 지니는 것일까?

우선 언급해 두어야 할 중요한 언어적 사실은 이 현상은 일정한 음성 조건의 관여 없이 일어나는 무조건적 변화의 성격을 띠는 것이다. 이와 같은 /j/ 첨가의 성격은 동일한 전설모음화의 성격을 지니되 /i, j/의 [+high, -back] 자질에 의한 음운 동화의 성격을 지니는 움라우트와는 구별된다는 점에서 매우 독특한 언어적 성격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최전승(1983)에서 재인용.

두 변화의 성격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최근 국립국어원에서 간행한 ‘지역어 구술자료 총서 6-1’ 『전남 곡성 지역의 언어와 생활』에 수록된 방언 자료의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ㄱ. 베끼고(벗기고) : 그래가꼬 인자 고눔 인자 베끼고 베끼고 그러조 (38쪽)
 ㄴ. 개래(가려) : 한낙씩 난나치 개래가지고 또 췌매요.(26쪽)
 (2) ㄱ. 얼마나(얼마나) : 얼마나 오래 나두고 무간디요? (136쪽)
 ㄴ. 방애(방아) : 인자 보리 보리방애를 찌머는 (144쪽)

위의 예들 가운데 (1)은 움라우트를, (2)는 /j/ 첨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용례이다. 여기에서 보듯이, (1)의 움라우트가 후행 음절의 모음 /i/(1ㄱ)나 활음 /j/(1ㄴ)를 동화주로 하여 실현되는 역행동화의 성격을 지니는 반면, (2)의 예들은 그러한 음성 조건의 관여 없이 나타나는 무조건적 변화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일단 /j/ 첨가는 일정한 음성 조건과는 관련이 없는 무조건적 변화에 속한다는 전제가 성립하게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j/ 첨가의 동기에 대해서는 매우 다양한 접근이 시도되어 왔는데,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j/ 첨가의 성격, 특히 /j/ 첨가의 동기를 밝히려는 지금까지의 논의들은 크게 두 가지, 즉 형태론적 관점과 음운론적 관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j/ 첨가의 동기를 형태론적 관점에서 설명하려는 시도는 다시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그 첫 번째 시도는 /j/ 첨가를 명사화 접미사 ‘이’의 첨가로 보는 입장이다. 이는 명사 어간 말에 접미사 ‘이’를 연결함으로써 새로운 명사의 어간을 형성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Ramstedt(1939)로부터 시작해서 小倉進平(1944), 이기문(1972), 최전승(1979), 이송녕(1981)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Ramstedt(1939 : 39~40)에서는 ‘호랑이’(虎), ‘얼굴이’(顔)의 원래 형태

는 각각 ‘호랑’, ‘얼굴’이었으나, 명사 어간말음에 접미사 -i를 첨가함으로써 ‘호랑이’, ‘얼굴이’와 같은 새로운 어간이 형성된 것으로 파악하였다.³⁾ 이기문(1972 : 146), 이승녕(1981 : 89)에서도 명사 어간에 접미사를 연결하여 새 명사의 어간을 형성하는 ‘denominal noun’의 예로 ‘두텁 + -i > 두터비(蝮), 풀 + -i > 푼리(蠅), 부형 + -i > 부형이(鵞)’ 등의 예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들은 /j/ 첨가를 명사화 접미사 ‘이’의 첨가로 보되, 선행 어간의 말음이 폐음절인 경우에 접미되어 결과적으로 어형의 확대를 가져오는 현상을 설명하려는 시도에 속하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⁴⁾

한편, 최전승(1979)은 명사화 접미사 ‘이’의 첨가 현상을 개음절 환경으로까지 확대하여 폐음절 어간의 명사에 붙는 ‘- i’(굼병이, 호랑이)와 개음절 어간의 명사에 붙는 ‘- i’(즈개, 즈식, 나죄)⁵⁾는 동일한 파생법 원리의 지배를 받은 형태들이라고 전제함으로써,⁶⁾ 명사화 접미사 ‘이’의 첨가 현상

3) 그 밖에 Ramstedt는 ‘대장이’(대장장이), ‘목장이’(목수)의 ‘-장이’가 원래는 ‘-장’이었으나 여기에 ‘-i’가 첨가됨으로써 ‘-장이’가 되었고, 이를 단어를 구성하는 필수요소로 받아들이게 되어 새로운 모음을 지닌 어간(new vocalic stem)이 형성된 것으로 보았다. 또한, 북부방언에서의 ‘발구>발귀(산에서 마소가 끄는 썰매), 만두>만뒤’ 역시 이와 동일한 과정을 통해 형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4) 예컨대, 이승녕(1981:89)에서는 접미사 ‘이’를 연결하여 새로운 어간을 형성하게 된 예로 ‘두텁, 풀, 부형’ 외에도 ‘납(猿), 그력(雁), 남상(龜), 굼병(鱉), 올창(鰍蚪)’ 등을 더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예들은 모두 폐음절 어간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5) 이러한 예들은 15세기에서 18세기에 걸친 여러 문헌에서 ‘a~aj, ʌ~ʌj, o~oj’의 변이가 존재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들이다. 즉, ‘즈·개’는 ‘즈·갸’와 ‘즈식’는 ‘즈숙’와, ‘나죄’는 ‘나조’와 뚜렷한 음성 조건이 없이 제2 음절에서 ‘a~aj, ʌ~ʌj, o~oj’의 모음 교체 내지는 변이를 보여주었던 예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6) 이러한 인식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최전승(1979:252)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음과 같은 기술이다.

명사파생 접미사 ‘-i’가 인명, 동·식물명, 곤충 등의 여타의 보통명사 어간에 접미되는 것이 일반성을 갖는 하나의 경향이라면 명사어간말음이 자음인 경우에만 결합이 가능하고 모음인 경우에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원칙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이르게 된다.

을 개음절 어간 뒤에 결합하는 광범위한 /j/ 첨가 현상까지를 포괄하는 것으로 본 시도였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접근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⁷⁾ 문제는 이와 같은 논의들에서처럼 첨가된 /j/를 명사 파생 접미사로 보는 것은, 백두현(1994:179)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툽 > 툽(顎), 슷리 > 식리(梯), 꺾고리 > 꺾고리(鶯), 웃고 > 윗고(笑), ㄹ꺾다 > 꺾기다(精彩)’ 등의 예에서처럼 어두에 첨가되는 i를 접미사로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형태론적 관점에서 /j/ 첨가를 설명하려는 두 번째 시도는 河野六郎(1945), 김형규(1963), 이돈주(1971), Ramsey(1978), 이상규(1983), 황대화(1998) 등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들은 모두 /j/ 첨가를 주격조사 ‘이’의 결합이라고 보았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즉, 국어의 여러 방언들에서 발견되는 ‘N + i’형의 방언형들은 체언 끝에 주격조사 ‘이’가 결합함으로써 형태론적 재구조화를 경험한 결과라고 보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제시된 예들로는 예컨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3) 풀+이 > 프리 > 파리, 곤+이 > 곤이 > 고니, 고슴돌+이 > 고슴도티 > 고슴도치

위의 예들에 따르면, 본래 1음절 혹은 3음절 어간이었던 ‘풀’, ‘곤’, ‘고슴돌’ 등은 주격조사 ‘이’와의 결합이 이루어진 후, 주격형이 단독형으로 굳어진 결과 기저형이 변화하는 재어휘화를 겪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3)에서와 같은 재어휘화 현상은 결국 어간의 장형화 현상의 맥락

7) 최전승(1983)에서는 /j/ 삽입 현상을 최전승(1979)에서 전제한 명사화 접미사 ‘이’의 첨가로 보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접미된 선행 체언에 [-격식성, +구어성, -존경성, +친숙성] 등의 자질을 부가시켜 주는 일종의 사회언어학적 변형(sociolinguistic variable)과 같은 표지라고 파악함으로써 /j/ 삽입을 사회언어학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하였다.

에서 파악되고 있는 점이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허웅(1965 : 519~520)에서는 우리말에는 주격조사 ‘이’가 명사에 접미하여 말이 길어지는 일이 있음을 흔히 지적하면서, ‘폴 > 폴리’ 항목에서 ‘폴+이 > 폴리’ (주격형)의 결합이 자주 나타나는데, 새로 말을 배우는 아동들이 주격형 ‘폴리’를 단독형으로 잘못 인식하게 된 결과 주격형이 그대로 어휘화를 경험하게 된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이돈주(1971 : 612)에서도 비슷하게 유지되는데, 주격조사 ‘이’는 주로 불안한 단음절 명사에 첨가된 채로 후대에 단독명사로 굳어져 어형의 안정을 꾀하였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j/ 첨가를 주격조사 ‘이’의 결합을 통한 형태론적 재구조화로 보는 관점이 지니는 가장 큰 문제점은 /j/ 첨가가 체언, 특히 체언의 어간말음 뒤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고, 어중은 물론 동사나 형용사 혹은 부사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다양한 환경에서 폭넓게 이루어지는데, 단순히 체언에만 한정시켜 주격조사로 파악하는 것은 설명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j/ 첨가를 형태론적 관점에서 볼 때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이 현상을 음운론적으로 처리하려는 것인데,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루어진 최초의 시도는 유창돈(1964)이다. 이 연구는 /j/ 첨가 현상뿐만 아니라 /j/ 탈락 현상까지를 관련시켜 /j/의 기능을 설명하려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우선, 유창돈(1964:165~168)에서 논의된 /j/ 첨가의 예를 몇 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4) ㄱ. 툇(頤) > 툇 : 뜯뜯 눈물이 툇에 흐르더라 <新續, 孝, 四, 5>
 ㄴ. 뺨 > 뺨 : 뺨 식(頤) <字會, 上, 25>
 ㄷ. 너가- > 녀가-(看) : 뜯뜯 도히 녀기노 형데등에 <두초, 上, 71>
 ㄹ. 꾀고리 > 꿏고리 : 꿏고리 잉(鶯) <類合, 上, 11>

- 고롭- > 괴롭-(苦) : 괴롭고 브즈러니 <警民, 7>
 모츠라기 > 뽀츠라기 : 뽀츠라기 순(鶉) <東醫 湯液, 一, 38>
 ㄱ. 구더기 > 귀더기 : 귀더기 저(蛆) <字會, 上, 25>
 ㄴ. 스크 > 식골 : 두 쓰리 식골서 나 <小諺, 六, 60>

위의 예들은 어간모음 /으, 아, 어, 오, 우, 으/에 /j/가 첨가됨으로써 이중모음 /의, 애, 에, 외, 위, 의/를 구성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예들이다. 이러한 예들에서 확인되는 /j/ 첨가는 한 가지 특징적인 면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j/ 첨가가 주로 어두 위치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j/ 첨가가 이와 같이 단순하지 않다는 사실은 백두현(1992: 176~184)에서 확인된 바 있다.

- (5) ㄱ. ㄹㅈㅈ-(精彩) > 깃깃- : 깃깃다 <語錄, 8a>
 꺾판(刻板) > 깃판 : 깃판 <念海 다 51a>
 웃- > 윗-(笑) : 윗고 <女士 21b>
 ㄴ. 상스 > 상시 : 상시(喪事) <正俗 초, 17b>
 양즈 > 양지 : 양지(養子)를 보젠댄 <七大, 6b>
 가마 > 가매 : 가매(釜) <杜重 11, 17b>
 놀라- > 놀래- : 놀래노니 <杜重 6, 9a>
 ㄷ. -건댄 > --젠댄 : 양지를 보젠댄(七大 6b), 가줄비젠댄(七大 21b)

위의 예들은 16세기에서부터 20세기에 이르기까지 영남 방언을 반영하는 문헌어에서 /j/ 첨가가 명사나 동사와 같은 어휘형태소의 어두(5ㄱ)와 어말(5ㄴ)은 물론, 문법형태소(5ㄷ)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수행되었음을 보여준다.

최전승(1986:175)에서도 19세기 후기 전라방언에서 단모음 /a/와 /ə/ 다 음에서 발견되는 /j/ 첨가 현상을 발견하고, 다음과 같이 그 예를 제시하고 있다.

- (6) 바라-(望)>바라- : 바리본이 (九雲上, 16a), 바리본죽(필사九雲上, 211b),
바리여(同, 214a), 바리난이다(초한下, 10a), 바리더
니(병오春, 22b), 바릴소나(대봉上, 7a).
- 지나-(過)>지너- : 다지너되(수절가, 44), 앞푸 지너거날(풍운, 13a), 명
나수의 지너다가(충열, 9a), 지너여(同上, 9b), 첫도
리 지너면(판朴, 344), 지너일(필사 九雲上, 226a).
- 만나-(遭)>만너- : 어진 군자을 만너여 (필사九雲上, 226a), 다시 만넌
것 갓더라(同, 210a), 서로 만너괴난(同, 209b).
- 건너-(渡)>건네- : 강을 건네더니(조웅3, 19a), 건네마을(심청上, 5b),
건네리요(적성下, 3a), 하북 건네기를(삼국지3,
39a), 물을 건네기을(九雲上, 6a).
- 얼마(幾)>얼미 : 얼미나 되며(成烈, 192), 얼미나 흐논잇가(丁巳, 조웅1.
24a)

위의 예들은 /j/ 첨가가 ‘바라-’, ‘지나-’, ‘건너-’, ‘만나-’와 같은 동사를 포함하여 ‘얼마나’와 같은 부사어에도 적용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예들을 통해서 볼 때, 국어의 자생적인 언어 변화 현상으로서, 무조건적인 환경에서 수행되었던 /j/ 첨가 현상은 특정한 환경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상당히 다양한 문법 범주에 적용되어 온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무조건적 환경에서 나타나는 /j/의 음운론적 행위로는 (4)~(6)과 같은 첨가 현상 외에 탈락 현상이 발견되는데, 다음과 같은 예가 바로 그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 (7) ㄱ. 넣- > 넣- : 生薑 세 片 너허 <救方, 上, 13>
엮- > 엮- : 가슴과 비에 엮고 <救方, 上, 34>
스석로 > 스스로 : 스스로 죽(自) <字會, 下, 24>
피시- > 모시- : 모실 侍시 <千字 27a>
- ㄴ. 인지 > 인즈 : 인즈 <念海 다 51a>
바위 > 바우 : 바우 <대봉 上, 41,b>

싸위 > 싸우 : 그 싸우로 질너 <수절가 上, 10>

위의 예에서 (7ㄱ)은 어두 위치에서, (7ㄴ)은 어말 위치에서 이중모음을 구성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인 /j/가 탈락함으로써 단모음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예들 가운데 (7ㄱ)의 예들은 탈락에 의해 어간이 재구조화된 형태 그대로가 오늘날 표준어의 신분을 갖고 있는 반면에, (7ㄴ)의 예들은 표준어의 경우에는 원래의 기원적 형태를 회복한 형태가 표준어의 자격을 갖고, 탈락된 형태는 방언적 현상으로만 잔존해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상에서 살펴본 /j/ 첨가와 탈락 현상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일찍부터 나타나는 공통성을 갖고 있으며, 두 변화가 재구조화를 가져오게 된다는 점도 유사하여 단순한 표기상의 오류가 아니라, 일정한 음운론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고 볼 수 있다(백두현 1992:182).

그렇다면, /j/ 첨가와 탈락이 나타나게 된 음운론적 동기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백두현(1992:182~183)에서는 일정한 조건적 환경에서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 문헌에 나타나는 /j/ 첨가와 탈락⁸⁾이 무조건적 환경으로까지 확대 적용되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다음 예들을 보기로 하자.

- (8) ㄱ. 문히<ᄃᆞ>얏도소니(杜重 8, 4b), 物이 變化히<ᄃᆞ>야(杜重 16, 41a),
중을 청히<ᄃᆞ>야(彌陀, 32a)
ㄴ. 굴ᄃᆞ<ᄃᆞ>요니(杜重 24, 34a), 벼가<개>예(杜重 22, 40a), 사람을
어<예>여(避)(杜重 6, 15a)

위의 예들 가운데 (8ㄱ)은 후행 음절에 있는 /j/의 자질 확산에 의해 선행음절 모음에 /j/가 첨가된 경우이고, (8ㄴ)은 그 반대로 /j/가 후행하는 경우, 선행음절의 하향성 이중모음의 구성요소 /j/가 탈락함으로써 인접 음

8) 이는 잘 알려져 있는 대로 15세기 국어에서부터 나타나는 현상이다.

절에 동일 자질을 갖는 음소가 배열되는 것을 기피하게 된 것이라고 하겠다. 결국 (8)의 예들은 일정한 음성적 조건, 곧 /j/의 자질 확산 또는 동화에 의한 /j/ 첨가와 동음 생략 또는 이화 현상에 의한 /j/ 탈락 현상이 국어사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음을 보여주는바, 이러한 /j/ 첨가와 탈락이 무조건적 환경으로까지 확대 적용된 결과 (4)~(7)에서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일정한 음성 조건하에서 /j/의 탈락과 첨가라는 상반된 음운 현상을 보여주는 예로는 (8)에서와 같은 자료뿐만 아니라 보다 이른 시기의 국어 문헌 자료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이 그 예이다.⁹⁾

- (9) ㄱ. 니실(來日)~ㄴ실
 쉬비(易)~수비
 귀밀털(杜初 22:18)~구밀털(月釋 2:41)
 ㄴ. 저비(燕)~제비(杜初 9:14)
 겨집~계집(呂氏鄉約)
 그러기(雁~괴러기(訓蒙上 5)

위의 예들 가운데 (9ㄱ)은 후행 음절에 /i/ 모음이 있는 환경에서 /j/의 탈락을, (9ㄴ)은 동일 환경에서 /j/의 첨가를 보여주는 예들이다. 이와 같이, 일정한 음성적 환경에서 /j/의 탈락과 삽입이라는 상반된 음운론적 작용이 매우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러한 현상에 대한 일종의 유추적 확대가 무조건적 환경에까지 이루어지게 된 것, 이것이 바로 /j/ 첨가의 동기이자 원인이라고 할 것이다.¹⁰⁾

9) 최전승(1979:247) 참조.

10) Hock(2003:457)에 따르면 넓은 의미의 유추는 규칙적인 음성변화와 의미 변화의 일부 영역까지를 포괄한다고 할 수 있는바, 일정한 음운론적 조건하에서 수행된 /j/의 탈락과 삽입이라는 음성변화의 유추적 확대가 무조건적 환경으로까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전남방언에서의 /j/ 첨가 실현 양상

황대화(1998 : 64~69)에서는 국어의 통시적 음운 변화 가운데 하나로서, 어간이 단모음 /으, 아, 어, 오, 우/로 끝나는 경우에 실현된 하강적 활음(off-glide) /j/ 첨가에 의해 나타난 어간의 재구조화는 국어의 하위 지역 방언에 따라 상당히 다양한 양상으로 반영된다는 사실을 비교적 체계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전남방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 현상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돈주(1979:196~197)에서 이 현상을 후설모음의 전설모음화 추이라고 가정하고 몇몇 예를 제시하고 있긴 하지만, 그 전모를 파악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¹¹⁾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남 방언에서는 /j/ 첨가가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러한 실현 양상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전남 방언의 분화상은 어떠한가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진행해 나가고자 한다.

다음은 《전남방언사전》과《방언사전》(여수 편)¹²⁾에 수록된 어휘들 가운데 체언에서 나타나는 /j/ 첨가의 실현 양상을 보여주는 예들이다.

- (10) ㄱ. 가르매~가리매~가매(가마, 旋毛) 가매(가마, 轎), 감재(고구마), 꼽새(꼽사, 꼽사등이), 도갯집(도갯집), 도매(도마), 독새(독사, 毒蛇), 방애~뺑애(방아), 모개(모과, 木瓜), 부애(부아), 북감재(감자), 소매(소마, 오줌), 장개(장가), 치매(치마)

11) 다만, 이기갑(1986:74)에서 채소의 하나인 ‘파’가 전남방언에서 ‘파’, ‘페’ 두 가지로 실현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파’가 전남의 중·서부에, ‘페’가 동부에 각각 분포되어 있어 지역적 분화를 보인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화의 요인을 ‘접미사 -i’의 첨가로 봄으로써 본 연구와는 관점을 달리하고 있다.

12) 이는 전문적인 방언학자는 아니지만 여수 토박이 화자인 이희순 씨가 2004년 어드북스에서 간행한 사전으로, 자연스러운 여수 토박이말이 상당히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다는 점에서 방언학적 연구 자료로 삼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ㄴ. 검은재(검은자, 검은자위), 고구매(고구마), 과계(과거, 科擧), 그림재(그림자), 글재(글자), 농새(농사), 봉새(봉사), 봉숭애(봉숭아), 소래(소라), 열매~언매(얼마), 이매(이마), 이새(이사, 移徙), 이재(이자, 利子), 임재(임자), 자래(자라), 장매(장마), 장새(장사), 재(자, 尺), 조개(조카), 지새(제사), 처매(처마), 판재(판자), 패(파), 허패(허파), 화~해(화, 火), 혼채(혼자)

(11) ㄱ. 건네(건너) 너매(너머), 동세(동서), 문세(문서), 부세(부서), 부채(부처, 佛處), 수제(수저), 숭테(숭터, 糞터), 애제(애저)

ㄴ. 고등애(고등어), 광애(광어), 농애(농어), 봉애(붕어), 상애(상어), 숭애(숭어), 오징애(오징어), 은애(은어), 잉애(잉어), 짱애(짱어)

(12) 쇠(소), 케(코)

위의 예들 가운데 (10)은 체언의 어간말 모음이 /아/인 어휘들에서 실현되는 /j/ 첨가의 예들이고, (11)은 어간말 모음이 /어/, (12)는 어간말 모음이 /오/인 어휘들에서 각각 실현되는 /j/ 첨가의 예들이다. 이러한 예들에서 드러나는 /j/ 첨가에는 우선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드러나는데, 그것은 (12)의 ‘쇠, 케’를 제외하면, /j/ 첨가가 모두 어간말 모음 /아, 어/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언어적 사실과 관련, 황대화(1998 : 64~69)에서는 국어의 통시적 음운 변화로서, 어간의 끝 음절 모음 /으, 아, 어, 오, 우/에 /j/가 첨가된 결과 /애, 예, 외, 위/로 재구조화되는 현상의 공시적 반영에서 ‘오>외, 우>위’의 변화는 동북방언이나 육진방언, 일부 중부방언 및 제주방언에서만 발견될 뿐 다른 남부방언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바, (12)의 예들은 바로 그와 같은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위의 예들 가운데 ‘아>애’의 변화를 반영하는 (10)의 예들은 본 연구의 목적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언어적 사실을 보여주는데, (10ㄱ)의 예들이 전남 방언의 전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과는 달리, (10ㄴ)의 예들은 지역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임으로써 전남 방언의 분화에 직접적으로 관

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예컨대, 전남방언의 경우 ‘고구마’의 방언형으로 ‘감재’가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는데, 일부 지역, 곧 광양, 여천, 구례, 승주 등 전남의 동부 지역어에서는 ‘고구매’가 쓰임으로써 방언의 분화를 보이는 것이다. 또한, ‘재(자, 尺)’나 ‘패’(파, 蔥)의 경우 역시 대부분 전남의 동부 지역어에서 주로 나타남으로써 방언 분화에 직접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어>에’의 변화를 반영하는 (11)의 예들에서는 한 가지 특징적인 언어적 사실이 발견되는데, ‘-어’로 끝나는 생선 이름에 /j/ 첨가가 이루어져 결과적으로 ‘어>에’의 변화를 보인다는 것이다. (11ㄴ)은 바로 그러한 언어적 사실을 보여주는 예들이다. 이와 같이, ‘-어’로 끝나는 생선 이름에 /j/ 첨가가 이루어져 결과적으로 /에/로 재구조화되는 현상은 전남의 전 지역에 걸쳐 일어나는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¹³⁾

한편, 그 예가 상당히 제약적이긴 하지만, ‘오>외’의 변화를 반영하는 (12)의 예들 가운데 ‘케’는 다음과 같은 음운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인다.

(13) 기저형 :	코
/j/ 첨가 :	콰
비원순모음화 ¹⁴⁾	케
표면형	[케]

여기에서 보듯이, ‘코’는 /j/ 첨가를 수행한 후 이루어진 비원순모음화를

13) 홍순탁·이돈주(1976:298)에서도 ‘상어·숭어·문어·홍어’ 등의 魚名에서 ‘어’가 ‘에’로 실현되는 현상에 대해 주목하면서 이러한 변화는 전남방언의 전 지역에 걸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이 논문에서는 /j/ 첨가를 조음의 편이를 추구하는 현상으로서 原語의 반성이 없이 습관적으로 굳어진 현상으로 보고 있음이 특징이다.

14) ‘콰>케’의 변화를 비원순모음화로 볼 수 있음은 전남방언이 통시적으로 수행한 모음 /ɨ/의 변화, 곧 ‘oj>ö>e’의 변화 가운데 ‘ö>e’의 변화를 원순모음 /ö/가 비원순모음 /e/로 변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거쳐 ‘케’의 형태로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성격의 ‘케’는 단독형으로뿐만 아니라 몇몇 합성어나 절의 구성 요소로도 나타나는데, 다음은 이희순(2004)에 수록된 여수방언에서의 ‘케’의 용례이다.

(14) ㄱ. 켓등~켓등이(כות등), 켓딱쟁이(코딱지), 켓잔댕이(כות잔등), 켓피(코피) 등.

ㄴ. 케가 시다(코가 세다), 케를 기리다(코를 골다) 등.

위의 예들 가운데 (14ㄱ)은 ‘케’가 합성어의 구성요소로, (14ㄴ)은 ‘케’가 서술절의 NP로 쓰이고 있어, 일정한 역사적 단계에서 이루어진 /j/ 첨가가 이 지역 방언에서 어간말 모음이 /아/나 /어/인 경우 외에도 실현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j/ 첨가는 체언의 경우 외에도 몇몇 동사나 부사의 어간말 모음 뒤에서도 실현되고 있는데 다음이 그 예이다.

(15) ㄱ. 놀래-(놀라-, 驚), 만나-(만나-, 逢), 모지래-(모자라-, 不足), 바래-(바라-, 希), 지내-(지나-, 過)

ㄴ. 건네-(건너-, 涉)

(16) ㄱ. 당애(당아, 아직)

ㄴ. 아깨(아까), 조깨(조까, 조금), 조매조매(조마조마), 하매(하마, 이따)15)

위의 예들 가운데 (15)는 어간말 모음이 /아/(15ㄱ)나 /어/(15ㄴ)로 끝나는 동사에 /j/가 첨가되어 재어휘화된 모습을 반영하는 것이고, (16)의 예들은 몇몇 부사 어휘에 /j/ 첨가가 실현되어 재어휘화된 모습을 반영하는 예이다.

그런데 (15), (16)의 예에서 보듯이, 몇몇 동사나 부사 어휘에 /j/ 첨가가 이

15) 그 용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하매 기벌이 올 때가 됐는다.

루어져 재어회화되는 모습은 어간말 모음이 /아/인 경우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양상은 (10)~(14)에서 살펴본 체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우리는 전남방언의 경우, 통시적으로 이루어진 /j/ 첨가에 의해 ‘아>애, 어>에, 오>외’를 보이는 어형들은 체언은 물론 동사나 부사와 같은 형태들에도 적용되는 상당히 광범위한 현상이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j/ 첨가 현상은 전남방언 안에서도 방언권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는바, 다음에서는 /j/ 첨가에 의한 전남방언의 분화 양상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4. /j/ 첨가와 전남방언의 분화 양상

본 연구의 최종 목적은 /j/ 첨가와 관련되는 전남방언 분화의 구체적인 양상을 파악하려는 데 있는바,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전남방언의 하위 지역어를 대상으로 하는 직접적인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계적으로 처리함으로써 /j/ 첨가의 실현율에 따른 방언 분화의 양상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조사 항목은 (10ㄴ)의 명사 26개, (12)의 명사 2개, (16ㄴ)의 부사 4개 등 모두 32개의 어휘이며, 이러한 어휘들이 전남방언의 네 조사지점에서 어떻게 실현되는가를 전통적인 방언지리학의 관점에서 60세 이상의 노년층 화자 2명씩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직접적인 면담에 의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¹⁶⁾

16)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전통 방언학에서는 가장 전형적인 자료제공자 혹은 제보자의 요건을 NORMs로 보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험이 없는 시골의 노년층 남성을 가장 적절한 자료제공자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되, 다만 성별에 의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 자료제공자로 노년층 남녀 화자 1명씩을 선정하였으나 이에 따른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바, 이번

조사 지점과 조사대상자를 밝히면 다음과 같다.

〈표 1〉 조사지점 및 조사 대상자

지역	조사지점	제보자			
		성명	성별	연령	학력
동북부	전남 광양군 진월면 신구리	JSJ	남	75	무학
		SYE	여	84	"
동남부	전남 고흥군 동강면 한천리	KYS	남	86	"
		SKS	여	85	"
서북부	전남 화순군 이서면 안심리	LDY	남	72	"
		KHJ	여	79	"
서남부	전남 장흥군 대덕읍 도청리	KSS	남	78	"
		LJD	여	70	"

위의 <표 1>을 보면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모두 70세 이상의 고령층 화자들로서 학교교육은 전혀 받은 적이 없는 전형적인 토박이화자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조사대상자를 70세 이상으로 제한한 것은 60세 이상의 노년층 화자들 사이에서도 상당한 세대 차가 나타나고 있어서, 적어도 일정한 지역 방언의 토속형(vernacular form)을 찾아내려면 70세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조사자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조사자의 경험에 따르면, 60대의 화자들에게 해당 지역 방언의 토속형을 제시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그건 옛날 어른들이 쓰던 말’이라는 반응을 보이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그만큼 언어 변화, 특히 표준어화의 속도가 빠르다고 할 수 있는바, 만일 정태적 차원에서 일정한 지역 방언을 질적으로 접근하려면, 조사대상자의 요건으로 나이나 학력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전제로 본 연구의 조사 지점에서 확인된 /j/ 첨가의 실현 양상을 하나의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조사 및 분석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았음을 밝혀 둔다.

〈표 2〉 조사 지점별 /j/ 첨가의 실현 양상

어휘항목	조사지점	동북부 (광양)	동남부 (고흥)	서북부 (화순)	서남부 (장흥)	비고
검은재(검은자위)		×	×	×	×	동자~꺼명창
고구매(고구마)		○	×	×	×	감재~감자
과게(과거)		○	○	○	×	
그림재(그림자)		○	×	×	×	거림자
글재(글자)		×	×	×	×	
농새(농사)		×	×	×	×	
봉새(봉사)		×	×	×	×	
봉숭애(봉숭아)		○	×	×	×	봉선화~봉성아
소래(소라)		×	○	×	×	소랑
얼매~언매(얼마)		○	○	○	×	
이매(이마)		○	×	○	×	이망~대망
이새(이사)		○	○	○	×	
이재(이자)		○	○	×	×	
임재(임자)		○	○	○	○	
자래(자라)		○	○	○	○	
장매(장마)		○	×	○	×	
장새(장사)		×	×	×	×	
재(자)		○	○	×	×	
조캐(조카)		○	×	×	×	
지새(제사)		○	×	×	×	지사
처매(처마)		○	○	×	×	
판재(판자)		×	×	×	×	
패(파)		○	○	×	×	
허패(허파)		○	○	×	×	
훼~해(화)		○	×	×	×	
흔채(흔자)		×	×	×	×	
쇠(소)		×	×	×	×	
케(코)		○	×	×	×	
아깨(아까)		×	×	×	×	
조깨(조까, 조금)		○	×	×	×	

조매조매	○	×	×	×	
하매(하마, 이미)	○	×	×	×	

이와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면, /j/ 첨가는 전남방언의 하위 방언권에 따라 그 실현에 있어 상당한 차이를 보여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 확인된 32개 어휘의 /j/ 첨가 실현율을 조사지점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조사 지점별 /j/ 첨가의 실현 빈도 및 실현율(%)

조사지점	동북부(광양)	동남부(고흥)	서북부(화순)	서남부(장흥)
실현율	22(68.8)	11(34.4)	7(21.9)	2(6.3)

위의 표에 제시된 /j/ 첨가의 실현 빈도 및 실현율을 통해 분명히 드러나듯이, 전남방언에서 /j/ 첨가는 방언권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우선 지적할 수 있는 가장 두드러진 차이로는 동북부 지역의 경우, 68.8%의 실현율을 보임으로써 네 방언권 가운데 가장 높은 실현율을 보이는 반면, 서남부 지역의 경우에는 6.3%의 가장 낮은 실현율을 보인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동부 지역, 즉 동북부와 동남부 지역의 평균 실현율은 51.6%인 반면, 서부 지역의 평균 실현율은 14.1%의 낮은 실현율을 보이는데, /j/ 첨가가 전남방언의 동부 지역어, 그 가운데서도 동북부 지역어에서 가장 높은 실현율을 보임으로써 전남방언의 방언권을 설정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을 안고 있다고 하겠다. 특히, ‘고구매, 그림재, 봉숭애, 조개, 지새, 해~해, 케, 조개, 조매조매, 하매’ 등 10개의 어휘는 모두 동북부 지역어에서만 실현됨으로써 이러한 형태들이 다른 지역어와 경계를 이루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재, 처매, 패, 허패’ 등 네 개의 형태는 동부와 서부를 가르는 요소 내지는 방언 표지로 기능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¹⁷⁾

물론, 어휘에 따라서는 네 조사지점에서 전혀 /j/ 첨가를 보이지 않는 것들도 상당수여서 이들 어휘가 적어도 본 연구의 조사지점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제약을 보이고 있으며, ‘임재’와 ‘자래’의 경우는 전 조사지점에서 출현함으로써 전남방언의 공통적 특징을 이루는 요소 가운데 하나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5. 맺음말

본 연구는 국어가 수행해 온 통시적 발달의 결과로 나타난 재어휘화의 모습으로 존재하는 /j/ 첨가의 국어학적 성격에 대한 연구사적 고찰을 통하여 이 변화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이 현상과 관련된 전남방언의 분화 양상을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 결과, /j/ 첨가의 국어학적 성격에 대해서는 일정한 음성 조건과는 관련이 없는 무조건적 변화에 속하는 것으로서, 체언을 비롯하여 동사나 부사와 같은 상당히 다양한 문법 범주에 적용되어 온 것이라는 사실과 함께, 일정한 조건적 환경에서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 수행되었던 /j/ 첨가와 탈락이 무조건적 환경으로까지 확대 적용된 데 그 동기와 원인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17) /j/ 첨가를 보이는 어휘들 가운데 전남방언을 동서로 분화하는 데 직접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네 개의 어휘, 곧 ‘재’, ‘처매’, ‘패’, ‘허패’ 가운데 ‘재’와 ‘패’는 경남방언의 분화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 김택구(2000:82~83)에서 이 두 어휘가 경남의 서남부 지역에 분포함으로써 경남방언을 분화하는 데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바, 이러한 형태들이 전남방언과 경남방언의 전이지대에서 출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김형규(1980)에서도 ‘파’의 ‘패’형과 ‘자’의 ‘재’형이 경남 서남부와 전남의 동부 지역에 비교적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어 그러한 가능성이 일찍부터 지적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전남 방언에서는 /j/ 첨가가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러한 실현 양상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전남 방언의 분화상은 어떠한가에 대해서는, 어간말 모음이 /아, 어/인 경우에는 상당히 생산적으로, /오/인 경우에는 몇몇 어휘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되, 체언의 경우는 물론 몇몇 동사나 부사의 어간말 모음 뒤에서도 실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또한, 일부 어휘의 실현 양상이 방언권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데, 전남의 북동부 지역어에서 가장 활발하게 실현되는 반면, 서남부 지역에서는 가장 낮은 실현율을 보임으로써 /j/ 첨가가 전남방언의 방언권을 설정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j/ 첨가는 전남방언의 경우, 서부 지역어에서보다는 동부 지역어에서 보다 활발하게 실현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j/ 첨가가 동서로 발달한 전남방언의 등어선의 두께를 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현상 가운데 하나일 수 있음이 확인된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전남방언의 하위지역어들에서 실현되고 있는 /j/ 첨가의 구체적인 모습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에 반하여 본 연구를 통해 그러한 문제가 어느 정도는 해결되었다는 데 또 하나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j/ 첨가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전남방언의 분화 양상에 대해서는 본 연구에서와 같은 제한된 조사지점이 아닌 전남방언 전체에 걸친 면밀한 조사를 통해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동태적인 변화의 관점에서 확인되는 /j/ 첨가의 사회언어학적 실상은 어떠한가에 대해서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후일을 기약한다.

【참고문헌】

1. 논문

- 김완진(1963), 「국어 모음체계의 신고찰」, 『진단학보』 24, 진단학회, pp. 65~94.
 이돈주(1971), 「國語의 語形擴大攷」, 『장암 지현영 선생 회갑기념논총』.
 이상규(1983), 「경북지역어의 주격 ‘-이가’」, 『어문논총』 17, 경북대 국어국문학과, pp.125~143. 이병근·곽충구 편(1998), 『방언』, 태학사에 재수록.
 최임식(1984), 「19세기 후기 서북방언의 모음체계」, 석사학위 논문(계명대).
 최전승(1979), 「명사 파생 접미사 -i에 대한 일고찰」, 『국어국문학』 79-80, 국어국문학 회, pp.245~265.
 최전승(1983), 「비어두음절모음의 방언적 분화(u~i)와 접미사 -i의 기능」, 『국어학연구』(정병욱 선생 환갑 기념 논총), 신구문화사, pp. 154~175. 최전승 (편)(1995), 『한국어 방언사 연구』에 재수록.
 홍순탁·이돈주(1976), 「전라남도방언」, 『국어방언학』, 형설출판사. pp. 286~318.
 홍운표(1980), 「근대국어의 격 연구(1)」, 『김준영 선생 회갑기념논집』.
 Hock, H.H.(2003), Analogical Change, in The Handbook of Historical Linguistics ed. by Joseph R. & R. D. Janda, Blackwell. pp.441~460.
 Moulton, W. G.(1968), Structural Dialectology, Language, 44.

2. 단행본

- 김정태(1996), 『국어 과도음 연구』, 박이정.
 김택구(2000), 『경상남도의 언어지리』, 박이정.
 김형규(1963), 『국어사 연구』, 일조각.
 김형규(1980), 『한국방언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백두현(1992), 『영남 문헌어의 음운사 연구』, 국어학회.
 유창돈(1964/1980), 『李朝國語史研究』, 반도출판사.
 이기갑(1986), 『전라남도의 언어지리』, 국어학회.
 이기문(1972), 『국어사개설』, 탑출판사.
 이돈주(1979), 『전남방언』, 형설출판사.
 이승녕(1978), 『제주도방언의 형태론적 연구』, 탑출판사.
 이승녕(1981), 『중세국어문법』, 을유문화사.

- 이희순(2004), 『방언사전』(여수 편), 어드북스.
- 최명옥(1982), 『월성지역어의 음운론』, 영남대 출판부.
- 최전승(1986), 『19세기 후기 전라방언의 음운 현상과 그 역사성』, 한신문화사.
- 최태영(1983), 『방언음운론-전주지역어를 중심으로』, 형설출판사.
- 황대화(1998), 『조선어 동서방언 비교 연구』, 한국문화사.
- 小倉進平(1944), 『朝鮮語方言の研究』, 岩波書店.
- 河野六郎(1945), 『朝鮮方言學試攷』, 河野六郎著作集 1, 평범사.
- Ramsey, R.(1978), Accent and Morphology in Korean Dialects, 『국어학 연구 총서』9, 탑출판사.
- Ramstedt, G. J.(1939), A Korean Grammar, Helsinki.

Abstract*/j/* Addition and Differentiation of Dialects of Jeollnamdo

Kang, Hui-suk

This study aims to identify characteristics of */j/* addition and aspects of differentiation of dialects of Jeollnamdo. For the purpose, it examined characters of */j/* addition in Korean linguistics which exists as a case of relexicalization due to diachronic development of Korean language.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j/* addition is a unconditional change irregardless of specific phonetic conditions and has been used for various grammatical categories such as verbs or adverbs including uninflected words. Then it was discovered that there are motives and reasons why the ranges of its addition and dropping which have occurred under certain conditions have been expanded even to unconditional environment.

This study analysed what aspect */j/* addition has in dialects of Jeollanamdo and how the dialects with */j/* addition have been differentiated. It discovered that it was productively applied for dialects with */a, eo/* as vowels of stem ending and limitedly for dialects with */o/* as a stem ending vowel, but for uninflected words, it was used after stem ending vowels of some verbs or adverbs. There was a considerable difference in its application. It was realized the most actively in the northeast area of Jeollanamdo while its southwest area had the lowest rate of its application. Therefore, it was demonstrated that there is a possibility that */j/* addition works as an important factor in deciding the dialect areas of Jeollanamdo.

key-words : /j/ addition, /j/ dropping, relexicalization, unconditional change,
dialects of Jeollnamdo, specification of dialects

강희숙

조선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주소 : (501-759)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375번지

전화번호 : 062-230-7316, 010-9881-7316

전자우편 : hskang@chosun.ac.kr

이 논문은 2010년 10월 31일 투고되어
2010년 12월 14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0년 12월 15일 게재 확정됨.